

##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민현숙<sup>1)</sup>

문영경<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기질을 선정하고, 어머니의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환경적 요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지 그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 96명(남아 50명, 여아 46명)과 그들의 어머니 96명이었다. 연구결과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외향적인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이었으며, 어머니의 우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우울로 나타나,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우울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유아, 문제행동, 기질, 어머니 심리적 특성

## I. 서론

유아기는 규율을 습득하고 사회적 승인에 대한 이해의 틀을 형성하며, 여러 갈등상황에 부딪혀 효과적으로 다루는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

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2) 영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계열 교수

로서, 점차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주변과 타인에게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적응적 행동의 발달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의 정적 기능과 상반되게 순조로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 특히 유아기에 겪게 되는 이러한 부적응적인 행동은 단지 유아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특징이 있어 이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적응 행동은 강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Patterson, Capaldi, & Bank, 1989).

유아의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외현화행동과 내면화 행동으로 대별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반면, 내재화된 문제행동은 소극적이고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자기 자신에게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행동은 유아기에 시작하고, 습관화된 문제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해진다(Feil, Severson, & Walker, 1998). 초기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이후 발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 행동, 사회적 기술의 결핍, 학업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Qi & Kaiser, 2003). 따라서 Khaleque와 Rohner(2002)는 이후의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하기 위해 유아기에 나타나는 내면적이거나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중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비해 유아의 부적응 행동이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 일반 아동들의 경우에도 전체 유아의 10-20%정도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어(이경숙·신의진·전연진·박진아, 2004), 문제행동이 더 이상 특수한 정신적 이상이나 발달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도 해당되는 것일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에 대한 접근은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에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최근 아동발달, 교육 및 소아정신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유아기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기질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Rothbart, 1998).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함에 있어 유아는 수동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

는 것이 아니라 유아 자신이 타고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발달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이다(Scarr & McCartney, 1988; 김연·황혜정 재인용, 2008). 특히, 기질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되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와 낮은 수준의 주의통제, 유아의 수줍음 등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희, 1998; 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Murphy, Lodoya, & Guthrie, 2001; Kim, Walden, Harris, Karras, & Catron, 2007). 이와 같이, 유아의 다양한 기질적 특성은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유아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여하는 기질과 그 기제를 정확히 언급하기에는 연구결과들이 혼재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의 다양한 기질적 특성이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가 속해있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중 가정환경은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rel & Kissil, 2003).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특성 환경은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arber, 1994; Davies & Dumenci, 1999).

Bowlby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인 문제 즉 심리적 부적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보이며(Beardslee, Bemporad, Keller, & Loerman, 1983; 곽소현, 2005, 재인용), 특히,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신경증적 성향은 자녀에게 철회, 불안, 수동성과 같은 내면화된 장애 및 공격성, 행동화와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야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s & Davis, 1994). 또한, Longarock 과 그 동료들(2002)은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증상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되고 있었고, 이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보고하였으며, Coyne, Burchill과 Stiles(1991)는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학습문제, 문제행동 및 정신과적 문제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Stratton과 Hammon(1998)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우울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공격

적인 남아의 어머니는 부정적인 자아상,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피로, 분노, 고립감 등의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신민경(2003)은 부모의 불안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적 통제력이 낮고 또래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부모의 불안과 유아의 공격성, 주의력 결핍, 위축 행동, 미성숙 행동 등의 문제행동과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유아가 태어나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환경으로서 유아 발달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행동, 인지, 정서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Cummings와 Davies(1994)는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적게 하고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으며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통제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흔히 어머니로부터 방임되고 적대감을 받으며 거부당하므로 애정을 충족시킬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어, 비임상적 수준의 어머니들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우울 수준에 따라 비임상적 수준인 집단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우울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대인관계와 관련한 부적응이나 역기능적인 인지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Marchand & Hock, 1998) 어머니의 우울 증후 정도가 비 임상적인 수준인 경우에도 유아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이나 불안은 특유의 역기능적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녀에 대해 정서적 반응이 부족하고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며 감소된 통제감으로 인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Hammen, 1992),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으로,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인 교류의 결과로 경험하게되는 일상적인 따분함, 신경질,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의 일상적 스트레스(강희경, 조복희, 1999)를 의미한다. 안지영(2001)은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양육스트레스로 정의하고, 부모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적응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Bigras 등은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가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더 우울하며, 결혼생활에 부적응을 보일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해 더 부정적, 통제적인 부모 역할을 보인다고 하였으며(Bigras, Lafreniere, & Dumas, 1994),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Booth, 1991). Crnic와 Greenberg(1990)는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아동 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을 가장 잘 예언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부모-자녀 체계의 중심인 어머니가 과도한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면 부모로서의 유능감에 회의를 느끼고 이에 따라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아가 발달하는 동안에도 유아의 부적응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Crnic et al., 2005),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 불안 및 양육 스트레스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또한, Barber(1994)는 메타분석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이며, 그 관계에서 아동의 특성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더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할 경우, 유아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이 이미 유아기 및 아동기의 원인에 의해 비롯될 수 있다(Loeber & Hay, 1997)는 점을 감안할 때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의 변인만을 살펴내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기질을 선정하고, 환경적 변인으로 어머니의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를 선정 하여 이들 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인 지 그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96명(남아 50명, 여아 46명)과 그들의 어머니 96명이다. 서울 및 경기지역 3개 유아교육기관을 연구자가 방문하여 만 4, 5세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유아의 기질,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묻는 질문지를 교부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지도로 원생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하였으며, 분석가능한 질문지를 제출한 어머니 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만 4세 7개월(범위: 48개월-62개월)이었으며, 형제 수는 2명이상이 76.5%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고(아버지 86.7%, 어머니 90.6%), 대졸(아버지 74%, 어머니 58.3%)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아버지가 사무직이 48%,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77%이었다.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400만원이 38.5%, 400만원 이상이 45%로 연구대상의 83.3%가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연구대상은 중산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명(%)	구분		명(%)
유아의 성	남	50(52.1)	전문직	8( 8.3)	
	여	46(47.9)	사무직 및 관리직	7( 7.3)	
유아의 연령	4세	74(87.3)	어머니의 직업	판매 및 서비스직	1( 1.0)
	5세	22(12.7)		아르바이트/기타	6( 6.3)
어머니의 연령	20-29세	2( 2.1)	주부	74(77.1)	
	30-39세	87(90.6)	200만 이하	1( 1.0)	
	40-49세	7( 7.3)	가계 총소득	201만-300만 이하	15(15.6)
어머니의 학력	고졸	13(13.5)		301만-400만 이하	37(38.5)
	대졸	69(71.9)		401만 이상	43(44.8)
	대학원 이상	14(14.6)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척도,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척도, 우울척도, 불안 척도였다.

### 가.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용 한국판 유아·청소년 문제행동 척도(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오경자 외, 1997)’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부모들이 아동 행동문제에 따라 3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K-CBCL’은 사회능력 척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문제행동은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며, 외현화된 문제행동은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한다.

K-CBCL은 유아의 부모가 보고하는 척도로 유아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인 문제행동들을 표시하게 되어있고, 각 항목은 3점 척도(0점: 전혀 없다, 1점: 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다, 2점: ‘자주 있거나 심하다’)로 평정하도록 되

어 있으며, 이 척도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내면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 모두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 나.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Putnam과 Rothbart(2006)이 개발한 CBQ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의 초간편형(very short form)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BQ 초간편형은 CBQ의 표준형의 요인형의 특성을 참고하고 고안되었으며, 3~7세 유아의 기질을 평가한다. 외향성(Surgency/Extraversion),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 주의통제(Effortful Control)의 3개 요인의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7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제나 그렇지 않다(1점)부터 언제나 그렇다(7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만약 주어진 문항에 대해 유아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해당 없음(NA)'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점수계산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외향성은 Cronbach's  $\alpha = .75$ , 부정적 정서는 Cronbach's  $\alpha = .70$ , 주의통제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 다.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1967)이 개발한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지게 되며, 0점에서 63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 라. 불안

어머니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75)가 정신장애가 없는 정

상 성인의 불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상태·특성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태불안 20문항과 특성불안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은 ‘지금-현재’ 느끼는 일시적인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반면에, 특성불안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 20문항을 사용하였고,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다”와 “나는 요즈음의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만 하면 긴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대단히 그렇다’의 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20~80점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7개의 긍정형 문항(1, 6, 7, 10, 13, 16, 19)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 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ri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의 질문지(DHS)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안지영(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마다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지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워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18점에서 90점의 범위를 갖는다. 각 문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어머니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김미숙·문혁준, 2005; 박성연·케네스루빈, 2008; 조영숙, 2008)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의 고찰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 기질, 어머니의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등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의 최소값, 최대값,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문제행동 척도 점수를 표준화된 T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46.23,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48.41이었으며, 총 문제행동 점수는 46.21로 나타났다.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오경자 등, 1997)에 따르면 척도의 사용목적에 따라 임상 범위의 판단 기준을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60T(85percentile)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대상 유아의 총 문제행동 점수,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평균점수는 60T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대상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있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분석에 앞서 유아의 문제행동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 기질의 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외향성은 4.25, 부정적 정서 3.88, 주의통제는 5.83으로 주의통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들의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가능한 문항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SD)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	0-2	33	69	46.23(9.09)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0-2	31	72	48.41(9.21)
유아의 기질				
외향성	1-7	2.38	6.18	4.25(.92)
부정적 정서	1-7	2.42	5.83	3.88(.80)
주의통제	1-7	3.92	7.00	5.40(.63)
어머니 우울	0 - 3	0	1.19	.37(.26)
어머니 불안	1 - 4	1.05	3.60	2.19(.48)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 - 5	1	4.39	2.51(.65)

또한 유아의 연구대상자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와 불안은 중간정도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어머니의 우울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상관관계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별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산출된 상관 계수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기질의 외향성( $r=-.31, p<.01$ )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 $r=.35, p<.01$ ), 어머니 우울( $r=.43, p<.01$ ), 어머니 불안( $r=.35, p<.01$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외향적이적이지 않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우울하고 불안할수록 유아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 $r=.26, p<.01$ ), 어머니 우울( $r=.36, p<.01$ ), 어머니 불안( $r=.35, p<.01$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주의통제( $r=-.22, p<.05$ )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낼수록, 유아의 주의통제가 낮을수록 어머니가 우울하고 불안할수록,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 (N=96)

		1	2	3	4	5	6	7	8
유아의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	1							
	외현화 문제행동	.62**	1						
유아의 기질	외향성	-.31**	.07	1					
	부정적 정서	.35**	.26**	-.19	1				
	주의통제	-.01	-.22*	-.17	-.18	1			
어머니 우울		.43**	.36**	-.03	.35**	-.11	1		
어머니 불안		.35**	.33**	-.05	.43**	-.29**	.61**	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10	.19	.19	.29**	-.26*	.30**	.47**	1

주: \* $p < .05$ , \*\* $p < .01$

## 2.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VIF 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10이하이고,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내면화 문제행동’의 경우 2.38,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2.15로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무, 가계소득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아의 기질변인을 투입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투입하여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모형 1에 투입한 변인인 어머니 학력, 직업유무, 가구월소득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 아동의 기질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에는 기질 중 ‘외향성’(β=-.220, p<.05)과 ‘부정적 정서’(β=.288, p<.01)이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20%이었다. 즉, 유아가 활발하지 않고, 외향적이지 않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할수록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아동의 기질에서의 외향성(β=-.227, p<.05)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β=.334, p<.05)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3의 설명력은 31%이었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추가함으로써 R2의 변화량은 11%이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유아가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외향적이지 않은 기질일수록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어머니의 우울(β=.334), 유아의 외향성(β=-.2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31%를 가진다.

<표 4>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96)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통제 변인	모학력	.106	.021	.033	.007	.303	.060
	모직업유무	2.019	.092	1.428	.065	1.268	.058
	가구월소득	-2.465	-.205	-1.232	-.103	-.690	-.057
유아의 기질	외향성			-2.194	-.220*	-2.268	-.227*
	부정적 정서			3.291	.288**	2.026	.177
	주의통제			.138	.009	.498	.034
어머니 심리적 특성	우울					.552	.334**
	불안					.054	.055
	양육스트레스					-.024	-.031
F-test		1.938		3.731**		4.254***	
R2(수정된 R2)		.060(.029)		.203(.148)		.311(.238)	
△R2		-		.143		.108	

주: \*p<.05 \*\*p<.01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모형 1에 통제변인인 어머니 학력, 직업유무, 가구월소득을 투입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2에서 유아의 기질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에는 유아의 기질 중 '외향성'( $\beta=.236, p<.05$ )이 유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3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 $\beta=.255, p<.05$ )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 3의 설명력은 21%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추가함으로써 R2는 7%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가 우울할 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우울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1%를 가진다.

<표 5> 유아의 외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96)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beta$	B	$\beta$	B	$\beta$
통제 변인	모학력	.450	.089	.432	.085	.650	.128
	모직업유무	2.560	.116	2.778	.125	2.634	.119
	가구월소득	-1.396	-.115	-.965	-.080	-.463	-.038
아동의 기질	외향성			1.226	.122	1.156	.115
	부정적 정서			2.729	.236*	1.603	.139
	주의통제			-2.250	-.152	-1.856	-.126
어머니 심리적 특성	우울					.426	.255*
	불안					.079	.081
	양육스트레스					-.019	-.211
F-test		1.060		2.284*		2.495*	
R2(수정된 R2)		.034(.002)		.135(.076)		.209(.125)	
$\Delta R2$				.101		.074	

주: \* $p<.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유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있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유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외향적인 기질과는 부적의 상관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외향성이 낮을수록 유아가 부정적 정서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면화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와 주의통제와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수준이 높고 주의통제를 하지 못할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Clark, Watson & Mineka, 1994, Rothbart & Bates, 1998, Eisenberg, et al., 2007). 즉, 분노나 화 등의 정서를 갖고 있는 유아일수록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외향성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부적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기질과 내재화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Oldehninkel, Hartman, Dewinter, Veenstra, & Orml, 2004). 유아의 주의통제와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의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유아의 주의통제가 이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한다는 Kochanska와 Knaack(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의통제는 주의집중(attention focusing)과 행동통제(inhibitory control)을 포함하므로(Rothbart & Bates, 2006),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고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수록 유아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은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유

아는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불안할수록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 불안적인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민아·이재신 2004; 이유진·박경, 2005; Coyne et al., 1991)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기질에서 외향적인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우울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머니의 우울, 유아의 외향적 기질 순이었다. 이는 우울한 어머니는 자신에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에 대해 정서적 반응이 부족하고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여 자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연·황혜정, 2008; 정미경·김영희, 2003; Wickramaratne & Weissman, 199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임상적 수준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의 발생에는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울, 불안과 양육스트레스는 각 변인간의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어머니의 우울에 불안과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의 욕구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이 떨어지고 우울이 심화될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유아의 철회, 수동성과 같은 내면화 문제 뿐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시킨다(Angold & Costello, 1995; Cummings & Davis, 1994)는 견해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행동,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유아의 외향적인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의 독자적인 영향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유아의 개인적 특질인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임상적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어머니의 우울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시기보다 큰 유아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 대상 어머니들의 우울의 정도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임상적인 우울증과 같은 정신 병리를 지닌 집단만이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우울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유아의 문제행동의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인인 유아의 기질보다는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추후에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어머니의 우울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유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유아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치료에서도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아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뿐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우울 감소를 위한 스트레스 대처법이나 대인관계 증진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혹은 부부 대화법과 같은 가족건강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육아관련 센터와 같은 제도적 인프라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뿐만 아니라 선진 육아정책의 개발 및 시행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가족 내의 건강성을 증진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대상이 중류층 이상의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보았으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나 까다로운 기질 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가족 내의 스트레스 및 가족관계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ummings & Davis, 1994),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가족 내의 스트레스 및 가족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함께 탐색하여 유아 발달의 위험요인을 완화하고 보호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곽소현(200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 모형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민아·이재신(2004). 어머니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45-166.
- 김민희(199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만족도에 따른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황혜정(2008).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8(3), 23-49.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박성연·임희숙(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

- 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연구소.
-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 51-61.
- 이경숙·신의진·전연진·박진아(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3-73.
- 이영호·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유진·박경(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5(2), 39-57.
- 이찬숙·현은자(2008).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변인과 부모양육태도. **유아교육연구**, 28, 51-70.
- 정미경·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 123-137.
- 최정미·우희정(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61-369.
- Barber, B. K.(1994).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s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64-974.
- Coyne, J. C., Burchill, S. A., & Stiles W. B.(1991).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on depression. In: C.R. Snyder and D.R. Forsyth, Editor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pp. 327 - 349). Pergamon, Elmsford, NY.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ummings, E. M., & Davis, P.(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73-112.
- Davies, P. T., & Dumenci, L.(1999). The interplay betwee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distres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238-254.
-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et al.(2007).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93-211.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et al.,(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 Hammen, C.(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Khaleque, A., & Rohner, R. P.(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 cultural and intra 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4-64.
- Kim, G., Walden, T., Harris, V., Karras, J., & Catron, T.(2007).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emotion control in the externalizing problems of school-aged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3), 221-239.
- Kochanska, G., & Kna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 1087-1112.
- Langrock, A. M., Compas, B. E., Keller, G., Merchant, M. J., & Copeland, M. E.(2002). Coping with the stress of parental depression: Parents' report of children's coping,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 312-324.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Marchand J. M., & Hock, E. (1998). The relation of problem behaviors in preschool children to depressive symptoms in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 353 - 366.
- Oldehninkel, A. J., Hartman, C. A., De Winter, A. F., Weenstra, R., & Orml, J. (2004). Temperament profiles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pre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421-440.
- Patterson, G. Capaldi, D., & Bank, L. (1989).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pp. 139-168). Hillsdale, NJ: Erlbaum.
- Putnam, S. P.,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113.
- Qi C. H., & Kaiser, A. P. (2003).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Review of the literatur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4), 188-216.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105-176). New York: Wiley.
- Webster-Stratton, C., & Hammond, M. (1998). Conduct problems and level of social competence in Head Start children: Prevalence, pervasiveness and associated risk factor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2), 101-124.
- Wickramaratne, P. J., & Weissman, M. M. (1998). Onset of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by developmental phase and parental depr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9), 933-42.

- 논문접수 2009년 4월 22일 / 수정본 접수 5월 19일 / 게재 승인 5월 27일
- 교신저자: 민현숙,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minhs@hanmail.net](mailto:minhs@hanmail.net)

## **ABSTRACT**

###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Meen, HyunSook  
Moon, YoungKou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The subjects were 96 of 4, 5 years old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in 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eschooler's surgency and mother's depression effects on preschooler'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other's depression was the best predictor of preschooler'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econd, mother's depression effects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Key Word: Preschooler, problem behavior, temperament,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육아정책연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육아정책개발센터(이하 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학술지 발간목적) 학술지 발간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
2. 육아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
3.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지적 기반 확보

제3조(발간횟수 및 발간일) 발간 횟수는 연간 2회로 하고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게재논문 편수) 1회 게재 논문 편수는 최종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 10편 내외로 한다.

제5조(논문 공모주제) 논문 공모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 제2장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육아정책개발센터 출판·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편집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센터 출판·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7조(편집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센터 출판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센터 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자격요건에 있어 전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또는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관련기관 근무자

로 한다.

3. 편집위원은 연구 분야에 있어 유아교육학, 보육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육아 관련 전공으로 하며, 영문편집위원 1명을 포함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센터 출판편집운영세칙 또는 출판편집위원회의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2. 논문 심사

제9조(편집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온라인 회의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3장 논문 접수 및 심사

제10조(논문 투고) 1. 논문 투고 자격은 유아교육학, 보육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육아 관련 전공자로 한다.

2.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 투고 지침”에 따른다.

제11조(논문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투고논문의 「육아정책연구」 공모 주제 부합 여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과 심사제외 논문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서식 제1호>에 의거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판정하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5.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위원회는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논문을 게재한다.

6.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7.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투고자가 수정 후 다시 투고할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한다.
8.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위원 2인 재심사) *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위원 3인 재심사) **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한 논문 심사 후 게재가일 경우,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위원 2인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b>※ 심사 판정에 대한 기타 추가사항은 편집위원회 결정을 따른다.</b>			

\* : 수정한 논문 2인 재심사 후 1인 게재가일 경우, 게재가

\*\* : 수정한 논문 3인 재심사 후 2인 이상 게재가일 경우, 게재가

\*\*\* : 수정한 논문 2인 재심사 후 2인 모두 게재가일 경우, 게재가

제12조(논문 심사기준) 게재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2. 구성의 논리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타당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 제4장 출판

제13조(저작권) 「육아정책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육아정책개발센터에게 있다.

제14조(학술지 공개) 출판된 학술지 전문은 개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5장 개인정보 및 투고자 윤리

제1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6조(투고자 윤리) 육아정책연구는 연구계획, 수행, 심사, 결과보고의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와 중복게재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우 논문철회 및 투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장 기타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세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세칙개정) 본 세칙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지침

### 1. 논문 주제

-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3)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 2. 논문 형태

논문 형태는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추어 작성된 연구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3. 발간횟수 및 시기

「육아정책연구」의 발간횟수는 연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년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로 한다.

### 4. 논문 투고시기 및 방법

- 1) 논문을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 마감일은 1호 2월 28일, 2호 8월 31일로 한다.
- 2) 투고자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거 작성한 논문투고신청서와 논문 원본을 개발센터 이메일로 제출한다.

### 5. 논문 작성

- 1) 논문 작성은 <별첨 1>의 「육아정책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2) 양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6.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지원한다.

<별지 서식 제1호>

##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신청서

「육아정책연구」에 다음과 같이 논문 투고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권/호수	( ) 권 ( ) 호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저자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1			
	2			
	3			
	4			
교신저자	성명		전화	
	e-mail		휴대폰	
학위논문 여부	학위	박사학위 ( )		학위논문 아님 ( )
	학위수여일자			
	학위수여학교			
	지도교수			
	심사위원			
학술대회 발표	학술대회명			미발표 논문( )
	발표일자	년	월 일	
	발표형식	구두( ) / 포스터( )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			지원받지 않음( )
	지원년도	( )년도		
참고사항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육아정책개발센터 학술지 편집위원장 귀중

<별첨 1>

## 「육아정책연구」 논문 작성 요령

### □ 논문 작성

- 투고 논문은 논문제목, 성명,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내용,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 논문 저자의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영문성명을 표기한다. 외국인 저자의 성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저자의 소속은 각주 처리한다.
-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를 먼저 제시한다. 제1저자의 구분이 없는 경우, 논문투고 신청서 <참고사항>에 그 사항을 명기한다.
- 영문초록은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주제어(key words):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국문(영문)”의 형태로 영문 초록 밑에 적는다.
-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자로 표기하거나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한다.
- 논문 분량: 논문 편집 기준으로 20쪽 내외로 하고, 최대 35쪽을 초과할 수 없다.

### □ 편집양식

- 작성도구: 한글 2004 이상

여백주기	바탕글			각주모양	머리말 홀수쪽만 설정
	문단모양	글자모양			
위쪽 40.0mm	왼쪽여백 0	한(자)글 신명조	번호모양 1)	번호모양 1) 구분선길이 5 Cm 구분선위 3 mm 구분선아래 2 mm 각주사이 1 mm	글자모양 한글·영문: 굴림체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 -4 오른쪽여백 5 정렬방식 오른쪽
아래쪽 40.0mm	오른여백 0	영문 HCI Tulip			
왼쪽 40.0mm	들여쓰기 0				
오른쪽 40.0mm	줄간격 160	장평 95			
머리말 15.0mm	문단위 0	자간 -4			
꼬리말 15.0mm	문단아래 0	크기 10.5			
제본 0 mm	날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 용지종류 A4, 용지방향 보통으로 할 것(모든 보고서 및 자료에 적용)  
 ※ 문단 시작시 스페이스 바 2회 두고 3칸부터 시작  
 ※ 새로운 장(I, Chapter)이 시작될 때 쪽번호와 머리말은 감추기를 할 것  
 ※ 쪽번호 위치: 메뉴표시줄 → 모양 → 쪽번호매기기 → 왼쪽에 쪽번호 매기기 → 줄표넣기 표시하지 않기 → 매기기

분 류	값		글자 크기	글 풀	줄간격	문단 위	문단 아래	정렬방식
	표	제 목						
본 문	I. (장)		16	견명조	160	-	40pts	가운데
	1. (절)		13	한컴돋움	160	30pts	10pts	혼합
	가. (항)		12	한글, 영문: HY그래픽	160	15pts	10pts	혼합
	1)		12	한글, 영문: 중고딕	160	10pts	10pts	혼합
	가)		11	한글, 영문: 중고딕	160	10pts	10pts	혼합
	(1)		10.5	중고딕	160	-	-	혼합
	내 용		10.5	신명조	160	-	-	혼합
표 (그림)	표	제 목	10.5	한글, 영문: 중고딕	160 <sup>1)</sup>	15pts	-	가운데
	단 위		10	중고딕	130	-	-	오른쪽
	내 용		9.5	중고딕	130 이하	-	-	(앞부분은 혼합정렬)
	주/자료		9	중고딕	130	-	2pts	혼합
각 주	내 용		9	신명조	130	-	-	혼합
	제 목		16	견명조	160	-	50pts	가운데
참고문헌	내 용		10.5	신명조	150	-	5pts	혼합
	머리말(서언)		15	신명조	160	-	50pts	가운데
기타제목	목차(제목)		15	신명조	160	-	50pts	가운데
	영문요약	Abstract: 영문보고서명	15	Times N. R.(진하게)	160	-	50pts	가운데
	내용		11	Times N. R	160	-	-	혼합

註: 1) 표 및 그림 제목과 단위가 같이 나올 때의 줄간은 모두 130으로 함.  
 2) 제목이 연결되어 문단위와 문단아래가 겹칠 경우 아래 제목의 문단위를 0으로 할 것  
 3) 각 문단은 3칸부터 시작할 것

## ○ 표와 그림

- 그림과 표에 사용되는 양 괄호는 Ctrl+F10 → 문자코드 3412와 3413( [그림- ] ) 및 3414와 3415( <표 > )를 사용하고, 본문에는 자판기의 < >, [ ]를 사용함.
- 표와 그림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인쇄할 수 있도록 투고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 □ 인용과 참고문헌

## &lt;인용&gt;

- 논문 작성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줄씩 비우고 좌우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예> 이에 대해 홍길동은(2006)...
- 인용하는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 )으로 가른다.  
<예> 한 연구(홍길동, 2006; Anderson, 2005)
-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한다. 4인 이상은 세번째 저자까지 표시하고 OOO 외(국내저자), 또는 et al.(국외저자)로 나타낸다.

## &lt;참고문헌&gt;

- 논문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나라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한, 중, 일, 서양서 순으로 열거한다. 아래에 예시한 참고문헌 작성방식은 대체로 APA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서울: OOO

- 정기간행물의 논문

홍길동, 김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 25(4), 1-28.

- 학위논문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OO대학교 대학원.

- 인터넷 자료

홍길동(2006). 육아지원 방안 연구. <http://www.kicce.re.kr>

- 신문기사

OO일보 2006. 1. 1. 육아지원 방안 연구

※ 영문

-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 논문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할 것. 단, 정기간행물의 도서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할 것.

##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서문희(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은설(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문무경(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박혜원(울산대 교수, 아동가정복지학과)

신나리(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신유림(카톨릭대 교수, 아동학과)

이기숙(이화여대 교수, 유아교육과)

이영환(전북대 교수, 아동학과)

이재연(숙명여대 교수, 아동복지학과)

장영희(성신여대 교수, 유아교육과)

조부경(한국교원대 교수, 유아교육과)

황혜정(경기대 교수, 유아교육학과)

(가나다순)

### 편집간사

최진(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

---

## 육아정책연구

제3권 제1호

---

**인 쇄** 2009년 6월 29일  
**발 행** 2009년 6월 30일  
**발행인** 조 북 희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3317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학문화 02) 313-7593

---

ISSN 1976-6793